



## 제5회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

변화된 문화지형도와 공공성  
\_공공예술과 대중문화

Public Art and Popular Culture

PROGRAM BOOK

# Keynote

공공미술로 다가가기  
To make Art public

## Speaker

---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Hans Ulrich Obrist

- 서펜타인갤러리 아트디렉터  
Art Director of Serpentine Gallery



- 
- 前 파리시립미술관 큐레이터
  - 1991년 World Soup (The Kitchen Show) 이후 300회 이상 전시기획
  - the Curator of the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 Since his first show WorldSoup (TheKitchenShow) in1991, he has curated more than 300 shows.

# 공공미술로 다가가기

To make Art public



##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Hans Ulrich Obrist

지난 몇 년 동안, 새로 생겨나는 사립 뮤지엄과 공공 뮤지엄이 대단히 많아지면서, 전시 공간에 중점이 실리는 반면, 공공 미술을 위한 공간은 비교적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이제 공공 미술에 다시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나는 항상 마르티니크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에두아르 글리상(Édouard Glissant)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글리상은 후기 작품에서 전통적인 전시 공간들을 면밀히 관찰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쉽게 접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형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동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오픈 소스 전시 모델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의 최근 포스트 전시인 두 잇(Do It)은, 찬찬히 둘러보며 즐기는 공간과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전시 모델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관람객이 전시를 보기 위해 전시공간 안으로 문턱을 넘어 들어와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은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 공공 미술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길이 된다. 나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변혁을 일으

키는 힘을 믿는다. 사람들을 예술로 데려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 미술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경종을 울릴 수도 있는데, 공공 미술은 그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현재 우리는 심각한 생태적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공공 미술은 공감과 함께함(togetherness연대성)이라는 아이디어를 새롭고 절박한 사고 방식으로 확산시켜 줄 수 있다.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태학을 중심으로 두는 이유는, 우리와 환경을 분리시키는 벽과는 정 반대로, 생태학이 우리와 환경과의 일체감(togetherness함께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 장소 내에 미술을 만나는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 관람객들과 함께 신선하게 공감의 상황을 창출해내기 시작해야 한다.

공공 미술은 생태학, 불평등, 연대 안에 공동 미래, 그리고 가장 긴급하게는 사회 정의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좋다. 시인 에텔 아드난(Etel Adnan)의 말을 빌자면, “세상은 분리가 아니라 연대가(togetherness함께함), 의심이 아니라 사랑이, 고립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가 필요하다.” 나는 공공 미술이 우리를 연대, 사랑, 공동의 미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 예술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무엇이 긴급한지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를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참여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후한 인심이라는 공공 미술만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싶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도심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에 무료로 입장하도록 미술을 전시하여, 대중 예술을 진정으로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다.

In the last few years, we have seen a great increase in new museums, both private and public ones. With this development comes a strong focus on exhibition spaces and less on spaces for public art. This is why now it is ever more urgent to bring the focus back to public art again. I have always been very inspired by the Martinican writer and philosopher, Édouard Glissant. The later work of Glissant carefully observed the spaces in which exhibitions were traditionally presented. Art remains invisible to the large part of society, which is why we have to rethink the forms of engagement with art and create a more generous model of open-sourced exhibitions, which are more mobile and can reach more people. My recent post exhibition, DoIt, would be an example of that, as it can happen completely independent from an amuseal space.

This is important because within exhibition spaces, there is this idea that visitors have to cross the threshold in order to see an exhibition, which can hold people back. Public art can therefore be seen as a way to reach these people. As I have always believed i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art, and it is very important to think about not only how we can bring people to art but also how we can bring art to the people. That is really what public art can do.

Art can create empathy. It can be a wakeup call and within the realm of public art even more powerfully so. We are finding ourselves in a moment of great ecological danger and public art can help to proliferate the ideas of empathy and togetherness as new and urgent ways of thinking. This is why now ecology is at the heart of everything we do in our work at the Serpentine Galleries in London. Because ecology has to do with togetherness with our environment. It is the opposite of the wall of separation from the environment. We therefore need to create the situation of empathy as the new way to start with the visitors; enable new contact zones within public spaces.

Within the realm of public art, we can address themes of ecology, inequality, our common future in solidarity, and, most urgently, social justice. Etel Adnan, a poet, says “the world needs togetherness, not separation; love not suspicion; a common future, not isolation.” I think public art can lead us to togetherness, to love, to a common future. Art in the public can produce new realities, it

should not only point to something urgent but also help us, in that sense, to find solutions. And of course, the idea of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inally, the idea of generosity within public art is one I would like to stress: by making art accessible to everyone, free of admission and presented in all neighborhoods, not merely the city centers, is what makes art in the public truly inclusive and diverse.

